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부산시 중구 중구로 121
대표전화 : 051 - 461 - 2265



메리놀병원은 1950년 4월에 메리놀회 수녀들에 의해 부산 메리놀수녀의원으로 개설되어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1월 천주교 부산교구에 이양되어 현재는 부산성모병원과 함께 부산가톨릭의료원 체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63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환자를 그리스도처럼’이란 슬로건 아래 생명사랑과 인간존중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의료사목을 실천중입니다.

메리놀병원 호스피스는 1992년 가톨릭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스 봉사자회가 발족되어 1992년 2월에 제1회 호스피스봉사자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KBS TV닥터에 호스피스활동이 방영되었고 2006년 MBC사회봉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분산형 호스피스로 암 병동은 따로 있지 않지만 완화의료를 전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외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도자, 약사, 영양사와 30여명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통증 및 증상조절, 정서적, 영적 지지 등의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호스피스 대상자 중 퇴원한 환자와 가족에게도 호스피스팀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병동의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대상자와 봉사자가 1:1로 동행하여 동반자 혹은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어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체위변경, 구강간호, 발마사지, 삼푸봉사, 분당 호스피스와 연계해드리는 신체간호를 해드리고 있으며 음악요법(하모니카,오카리나), 산책, 문상, 연도, 장례예절 및 장지수행 등 정서적 지지와 기도, 성가, 교리, 성서읽기, 대세, 영세, 병자성사 등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영적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방문, 위로카드발송과 필요시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유가족들이 슬픔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드리고 병원 미사 및 사별가족모임을 통해 고인을 위한 미사 봉헌과 삶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 서로 위로 및 지지, 격려하는 모임을 마련해드리고 약기연주 및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장기자랑으로 위로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며 봉사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씩 봉사를 하는 것이 정례적이지만 담당하던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셔도 요양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선종하신 경우는 빈소를 지키기와 장지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겨놓은 얼마 안되는 가재도구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대상자가 유언으로 부탁한 49제를 이웃 사찰에서 지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자와 봉사자가 따뜻한 유대감으로 만나 세상 떠날 준비를 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함께 도와드리며 인간존중의 연민과 생명사랑으로 영혼이 깊어가는 곳,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입니다.

